

## HEADLINE NEWS

### 생태주택지역 개발프로젝트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市の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Viikki 구역은 연구개발, 비즈니스 및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바이오과학과 관련된 연구 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이 지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하에 발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디자인, 건축방법 및 주택단지 설계에 있어 천연자원 보존과 대기, 쓰레기 및 기타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다. 市는 1999년 Viikki 지역의 한 부분을 시험적인 생태주택지역으로 구획하였다. 이 지역은 녹색 도시생활을 위한 시험장으로서, 약 1,700여명의 거주자는 1) 환경오염 및 공해 발생 억제, 2) 자연환경 보존, 3) 위생과 건강 증진, 4) 생물다양성 증진, 5) 음식물 재활용 촉진 등의 5가지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 지역의 주택은 기존의 주택보다 열 소비가 1/4 수준이며, 물은 22% 감소되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주요한 공헌은 태양열과 중력통풍을 이용한 생태주택 디자인과 하수도로 유도되지 않고 지하로 유도되는 빗물의 지하유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온실, 정원, 기타 녹지지역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 거주자들은 Viikki의 생태지역 지정·개발을 독창적인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www.hel.fi/english/current/HelsinkiNews04.pdf](http://www.hel.fi/english/current/HelsinkiNews04.pdf))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주거시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해 도심부의 고도제한 완화 (워싱턴州: 시애틀)
- ② 버려진 토지 재개발을 위해 토지은행공사 운영 (미시건州: 플린트市)
- ③ 저소득층을 위해 '소유할 만한 주택' 관련 자료모음을 웹사이트에 공개 (미국)

### 도시환경

- ④ "난개발이 야생 동·식물 멸종의 주 원인" (미국)
- 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유기성 폐기물 회수 (스톡홀름)

### 도시교통

- ⑥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제시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 ⑦ 버스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워싱턴州: 터코마市)
- ⑧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방안 추진 (애틀랜타)
- ⑨ 주요 교차로 신호등에 예비전력 공급장치 설치 (뉴욕)

### 사회복지·문화

- ⑩ '편안한 잠을 자기에 가장 좋은 도시' 설문조사 (미국)
- ⑪ 인구 노령화에 따른 區의 활성화 방안 추진 (동경)

### 행·재정

- ⑫ 온라인을 통해 사업허가 갱신 가능토록 해 (시애틀)
- ⑬ 다양한 주택설계도면 무료 제공 (방콕)

### ① 주거시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해 도심부의 고도제한 완화 (워싱턴주: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그레그 니켈스(Greg Nickels) 시장은 도심부에 더 많은 주거시설과 사무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의 고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도심부 건물 고도제한 규정은 198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45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계획에 따르면 도심의 핵심부에 있는 건물은 최고 700피트, 나머지 지역은 600피트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니켈스 시장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개발업자에게 주는 대신 그들로 하여금 ‘소유할 만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도심부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 또한 제안하였다.

([seattletimes.nwsources.com/html/localnews/2002143989\\_downtown07m.html](http://seattletimes.nwsources.com/html/localnews/2002143989_downtown07m.html))

### ② 버려진 토지 재개발을 위해 토지은행공사 운영 (미시건주: 플린트市)

미국 미시건주 플린트(Flint)市는 도시에 버려진 토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토지은행공사(Land Bank Authority)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지은행공사의 역할은 도시 내에 버려진 토지를 민간이나 지자체가 쉽고 빠르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행정, 재정과 관련한 각종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지사 그랜홀름(Granholm)이 2004년 1월에 ‘The Land Bank Fast Tract Act’에 서명한 이후, 주의 다른 도시들도 토지은행공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유사한 토지은행공사로는 애틀랜타/폴턴카운티 토지은행공사, 클리블랜드 토지재활용 프로그램, 세인트루이스 토지재활용공사 등이 있다.

([www.mlui.org/growthmanagement/fullarticle.asp?fileid=16782](http://www.mlui.org/growthmanagement/fullarticle.asp?fileid=16782))

([sitemaker.umich.edu/urpoutreachreports/featured\\_reports/da.data/89052/ReportFile/a\\_detroit\\_land\\_bank\\_authority.pdf](http://sitemaker.umich.edu/urpoutreachreports/featured_reports/da.data/89052/ReportFile/a_detroit_land_bank_authority.pdf))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③ 저소득층을 위해 ‘소유할 만한 주택’ 관련 자료모음을 웹사이트에 공개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부족 문제와 ‘소유할 만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문제는 미국의 대부분 대도시권 지역의 계획부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미국계획가협회(APA: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는 ‘소유할 만한 주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렸다. 현재 저널 논문과 보고서 등 약 100여건의 문헌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HTML이나 PDF파일로 이용할 수 있다.

([www.planning.org/affordablereader](http://www.planning.org/affordablereader))

### ④ “난개발이 야생 동·식물 멸종의 주 원인” (미국)

저밀도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희귀 동·식물 멸종의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야생동물보호연합(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스마트성장 아메리카(Smart Growth America), 네이처서브(NatureServe)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35개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향후 25년 안에 희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초로 도시확산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멸종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제시한 대안이 스마트성장전략인데, 이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제어하고 이미 도시화된 지역의 재투자를 통해 재활성화와 재개발을 꾀하는 전략이다. 연구보고서는 ‘스마트성장 아메리카’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www.smartgrowthamerica.org/ebsreport2.html](http://www.smartgrowthamerica.org/ebsreport2.html))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유기성 폐기물 회수 (스톡홀름)

2005년 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과 기타 유기성 폐기물을 회수할 예정이다.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市가 몇 년 전부터 회수해 왔는데, 2005년 봄부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는 등 유기성 폐기물의 회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市의 쓰레기관리부서는 비료생산과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하여 고순도의 음식물쓰레기 회수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winter%202004.pdf](http://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winter%202004.pdf))

### ⑥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제시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미국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주변지역의 교통계획을 담당하는 SACOG (Sacramento Area Council of Government)는 최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Preferred Alternative'라고 불리는 이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는 달리 고밀도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여 통행거리를 단축하는 동시에 차량이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이 방안은 2050년까지 이 지역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나고 84만 가구의 새로운 주택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건설 등 공급 위주의 교통계획으로는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SACOG는 이러한 고밀도 개발계획과 함께 이 지역의 장래 통행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카풀 유도, 보행 및 자전거 등의 대안 통행수단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sacramento.bizjournals.com/sacramento/stories/2004/11/29/focus1.html?page=3](http://sacramento.bizjournals.com/sacramento/stories/2004/11/29/focus1.html?page=3))

### 7 버스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워싱턴주: 터코마市)

미국 워싱턴주의 피어스 카운티 지역에서 운행되는 지역 대중교통시스템인 'Pierce Transit'은 터코마市 북부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0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의 승객에 한해 전화예약을 받고, 노선에 관계없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선에는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형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며, 주중에만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Bus PLUS'라고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 대중교통시스템을 주변지역의 대도시로 연결시키는 연계기능 강화라는 대책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Pierce Transit'은 3년마다 시행되는 버스노선 평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해 왔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www.thenewstribune.com/news/local/story/4397869p-4176679c.html](http://www.thenewstribune.com/news/local/story/4397869p-4176679c.html))

### 8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방안 추진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로구간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교통위원회 등 교통관련 정책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는, 2년 전 민자유치에 의한 도로건설이 합법화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3곳의 도로구간을 유료 도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한 곳은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의 도입을, 또 다른 한 구간은 기존 유료 도로 구간의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사업에 이미 몇몇 민간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주교통당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www.ajc.com/business/content/business/horizon/1204/27tollstudy.html](http://www.ajc.com/business/content/business/horizon/1204/27tollstudy.html))

# 도시 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9 주요 교차로 신호등에 예비전력 공급장치 설치 (뉴욕)

미국 뉴욕시 교통당국은 정전 등의 전력공급 차질 발생시에도 교통신호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에 전력보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전력보완시스템은 정전시 작동되며, 몇 시간 동안 신호등에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500여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계획을 위해 시당국은 18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터널 및 교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를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전력 소모가 많았던 기존의 시스템을 LED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연간 4백만 달러의 전력소모비용 및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전력보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2003년도에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으며,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었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37440.htm](http://www.nypost.com/news/regionalnews/37440.htm))

### ⑧ ‘편안한 잠을 자기에 가장 좋은 도시’ 설문조사 (미국)

미국의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잠자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도시(Sleep in the City)’ 연구에 따르면, 미네소타州的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Anaheim),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Austin)의 주민들이 가장 만족스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시건 디트로이트(Detroit), 오키오 클리블랜드(Cleveland) 등의 주민들은 잠을 자는 데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실업률이 높고, 통근시간이 길수록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50개 대도시의 250,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my.webmd.com/content/article/95/103306.htm](http://my.webmd.com/content/article/95/103306.htm))

### ④ 인구 노령화에 따른 區의 활성화 방안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다이토區는 전체인구 15만 8천명 중 약 23%가 65세 이상으로, 東京에 있는 23개 區 중 가장 노령화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데 비해 고령인구를 위한 설비가 부족하다. 땅값이 비싼 까닭에 민영시설이 없으며, 공공시설도 5곳만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중학교부지 중 한 곳에 고령인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중학교부지가 있는 산야(Sanya)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다이토 거리에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쇠퇴해 가는 오래된 소규모 가게들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유치원에만 주어졌던 무료 의료혜택을 중학교까지 확장하여 2006년 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45세 이하 가정이 교외에서 區로 이사 오는 경우에는 주택구입, 전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지역 의료비와 저생산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東京都는 재고용 촉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센터의 교육내용이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교육 수료 후 재취업률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치요다區 센터에서는 60%가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기업에서 구직자에게 필요한 업무내용을 직접 교육시킨 결과이다.

([home.kyodo.co.jp/all/display.jsp?an=20041227016](http://home.kyodo.co.jp/all/display.jsp?an=20041227016))

### 온라인을 통해 사업허가 갱신 가능토록 해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2004년 12월부터 사업허가(business license)를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시애틀市는 200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류관리시스템인 SELF(Seattle Electronic Filing system)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업허가 갱신과 이에 따른 비용지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SELF는 기업 회계정보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세금 등 기업과 관련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웹 사이트([dea.seattle.gov/self](http://dea.seattle.gov/self))에서 SELF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한 후, 2005년도 사업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몇몇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허가 갱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4837&Dept=5](http://www.seattle.gov/news/detail.asp?ID=4837&Dept=5))

### 다양한 주택설계도면 무료 제공 (방콕)

태국 방콕 대도시권 관리국(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택설계도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주택설계 도면은 2005년 1월 말에 열리는 주택 페어(fair)에서 이용할 수 있고,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와 허가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다. 무료 주택설계도면은 필지의 크기에 따라 26개의 종류가 있으며, 이 도면들은 주택의 구조와 설계 측면에서 태국의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축가협회의 승인을 거친 것들이다. 주택을 직접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혜택 덕분에 건축비용의 약 5% 이상을 절약할 뿐 아니라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bangkokpost.com](http://www.bangkokpost.com) : "Thailand agency to hand out free blueprints of 26 home designs at fair", 2005. 1. 12)